

신경증, 불안, 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경로모형 검증 : 조절초점이론의 관점으로

천석준 이기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기능만이 강조되어 온 신경증이 특정 맥락 하에서의 진로탐색행동 촉진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진로탐색행동과 관련하여 지각된 불안은 신경증이 높은 개인에게 적합한 동기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수행을 향상시키지만,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기대감인 자기효능감은 이에 상응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 하에 설정한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 223명(남학생 93명, 여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신경증척도, 진로탐색자기효능감척도, 상태불안척도, 진로탐색행동척도, 조절초점전략척도가 포함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황적 맥락에 따라 참가자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모델 지시문 또는 부정적인 역할모델 지시문이 포함된 두 종류의 설문에 참가자들을 무선 할당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경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은 정적으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부적으로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서로 다른 조절초점기제에 따른 관련 변인에서의 차이 여부를 조사하고, 개인의 성향적인 조절초점과 상황적으로 일시적으로 유도된 조절초점의 일치여부에 따라 본 연구의 경로모형의 적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예방초점일수록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이 크며, 향상초점일수록 수행에 대한 자신감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향과 상황적 조절초점이 일치하는 경우에서만 본 연구의 경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조절초점, 신경증, 불안,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신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를 획득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진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로탐색행동은 특정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

한 행동적 차원에서의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Blustein, 1989). 개인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기존이해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 교신저자 : 이기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 2123-2445,
E-mail: khlee2445@yonsei.ac.kr

Bartley와 Robitschek(2000)에 의하면 성격특성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에 참여하는 양상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되어왔는데, 특히 신경증은 진로탐색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성격특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성격 5요인 이론(Goldberg, 1990)이 정의하는 방식에 근거하면 신경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안, 두려움,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에 따르면 신경증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진로탐색행동에서 더 큰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rtrand, Rose, Elliott, Marmarosh, & Caldwell, 1993).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순히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두 변인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요청되어 왔다(Wang, Jome, Haase, & Bruch, 2006).

개인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기존에 지녀왔던 이해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획득한 지식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기존 이해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 위협으로 지각되면 높은 수준의 불안이 야기되기도 한다(Jordaan, 1963). 신경증이 높을수록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체험에 민감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신경증이 높은 개인은 진로탐색행동으로부터 큰 불안을 지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Wang et al, 2006). 그러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차원에서 진로탐색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를 검증한 연구가 희박하며,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없게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으로부터 야기된 불안이 진로탐색행동을 철회하거나(Saks & Ashforth, 2000), 불충분한 상태에서 종결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Hardin, Varghese, Tran, & Carlson, 2006),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불안이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Reed, Bruch, & Haase, 2004).

본 연구는 불안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서 선행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성격변인으로서의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불안을 혼용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가정하였다. Spielberg(1966)는 불안을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신경증과 매우 밀접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 자각되면 자신의 상태불안의 강도를 높여서 반응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로 정의된다. 반면 후자는 특정 과제 또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으로 유발되는 긴장, 우려, 초조 및 걱정의 주관적인 상태로 정의된다. 신경증과 상태불안을 구분하여 각각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Crossley와 Stanton(2005)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효능감이란 인지적 기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행동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적 자원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특히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자기효능감으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lberg, Good, & Nord, 1994). Bandura(1986)은 특정 과제에 대한 이전 수행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가정한다. 즉, 동일한 수행이라도 성공으로 지각될 때에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지만, 반대로 실패로 지각할 경우에는 낮은 자기효능감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신경증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왜곡하여 축소시키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Sarason, 1973), 신경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저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탐색행동 장면에서 살펴보면 신경증이 높을수록 개인은 자신의 능력 및 가치를 저평가하고, 진로탐색행동의 유용성은 부정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Connolly & Viswesvaran, 2000).

이처럼 진로탐색행동은 인지적 기제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장면에서 야기된 상황적 불안의 영향을 받으며, 이 두 기제는 모두 신경증이란 성격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변인 모두 신경증이나 진로탐색행동과 연관되지만 각각 인지적 기제와 주관적인 정서체험이라는 상반된 차원에 놓여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방식으로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만약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가 이들 변인에 의해 매개됨이 증명된다면 이제까지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간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신경증 및 진로탐색행동과 각각 부정, 정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가정되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신경증 및 진로탐색행동 모두와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이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명함으로써 신경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이와 같은 가정을 설명함에 있어 성격이나 정서 심리학 분야에서 최근 많은 주목받고 있는 Higgins(1997)의 조절초점이론을 통해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불안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조절초점이론은 개인의 동기적 성향이 서로 다른 두개의 조절체계-향상초점과 예방초점-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각각의 조절체계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의 성격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 및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서의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향상초점은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태, 즉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예방초점은 원치 않는 결과를 막으려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상초점은 목표 달성과 관련된 기회에 대한 민감도를 증진시키지만, 예방초점은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증진시킨다(Shah, Higgins, & Friedman, 1998). 어떠한 조절체계에 초점이 맞춰져있는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향상초점은 성취, 향상, 증진, 열망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도전적인 자세로 목표에 접근하는 열망전략과 관련되지만, 예방초점은 위험이나 손실과 같이 원하지 않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고 회피하

는데 애쓰는 경계전략과 관련된다. 조절초점과 선호전략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향적인 특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Carver, Sutton, & Scheier, 2000).

조절초점에 따른 차이는 추구하는 목표의 성격이나 선호전략 뿐 아니라 주로 민감하게 지각하는 정서의 차원과 그 강도에서도 나타난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각각 ‘즐거움-낙담정서’와 ‘안도감-불안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Higgins, Shah, & Friedman, 1997). 목표상태가 달성될 경우 향상초점은 즐거움의 정서를, 예방초점은 안도감의 정서를 지각한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는 향상초점은 낙담을, 예방초점은 불안을 지각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처럼 조절초점에 따른 정서차원의 지각은 성향적인 조절초점에서 뿐 아니라 상황적으로 유도된 조절초점에서도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조절초점은 개인의 성향적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목표달성결과에 따른 정서 상태를 통해 유도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과 상황적 조절초점이 일치할수록, 해당 조절초점과 관련된 목표에 대한 동기수준과 정서지각의 크기가 향상될 것으로 가정한다(Camacho, Higgins, & Luger, 2003).

Tamir(2005)는 조절초점이론의 기본원리를 성격특성과 정서체험의 관계에 적용하여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과 상황적 조절초점이 일치할 때의 이점을 설명하였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각각 ‘즐거움-낙담정서’와 ‘안도감-불안정서’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각각은 해당 정서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외향성과 신경증에 연결되는데, 성격특성에 상응하는 정서는 각각의 성격특성을 반영하는 조절초점에 동기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행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았다. 즉, 신경증이 높은 개인에게는 상황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때 성향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예방초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주어진 과제 수행에 대한 참여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여 신경증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증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방초점은 경계전략을 통해 목표달성에 접근하는데, 이 초점이 우세한 개인에게 있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경계동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차레로 낮은 동기수준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Förster, Higgins, & Idson,

1998).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수준이라는 점에서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동기적 방향성이나 선호 전략에 불일치하는 자기효능감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진로탐색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불안은 신경증과 관련된 예방초점에 상응하는 정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 참여 의도의 관계를 정적으로 연결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목표달성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 역할 모델로서 기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모델은 이상적 자기를 추구하는 개인의 목표와 포부를 강화시킬 것이며, 부정적인 역할 모델은 당위적 자기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목표로 작용할 것이다(Lockwood, Jordan, & Kunda, 2002). 조절초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조절초점전략에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자신의 조절적 관점에 부합하는 전략을 추구하도록 동기화될 때, 동기와 수행이 향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Lockwood 등(2002)은 역할 모델의 목표 달성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조절초점전략과 일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그리고 향상초점을 유발할 것으로 가정되는 긍정적 역할모델지시문을 읽은 참가자 집단 중 성향적 조절초점이 향상초점인 참가자들이 예방초점인 참가자보다 동기수준이 높으며, 반대로 예방초점과 관련된 부정적 역할 모델 지시문을 읽은 집단 중 성향적 조절초점이 예방초점인 참가자들이 향상초점인 참가자들보다 동기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성향적 조절초점과 상황적 조절초점이 일치할수록 동기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란 Camacho, Higgins, 및 Luger의 연구(2003)를 경험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신경증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 각각을 독립적으로 매개하여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참여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조절초점의 관점을 적용하여 신경증에서 진로탐색행동에 이르는 경로들이 성향과 상황적 조절초점의 일치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의 관계가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의해 각각

정적, 부적으로 매개되는가? 둘째, 만약 그렇다면 성향적 조절초점과 상황적 조절초점의 일치여부에 따라 매개모형의 적합성 및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연구 참가자 모집, 자료수집, 자료관리가 이루어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22명(남자 92명, 여자 130명)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 도구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동의 있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총 218명(남자 90명, 여자 12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참가자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 23명(10.5%), 2학년 76명(35.2%), 3학년 43명(19.6%), 4학년 76명(34.7%)이었다.

측정도구

신경증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신경증을 측정하기 위해 Costa와 McCrae (1985)의 60-item NEO Five Factor Inventory를 양은주와 류인균이 번안한 검사도구(2000) 중 신경증을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7점 리커트 형식(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체 문항에 응답한 총점이 높을수록 신경증이 높다고 해석한다. 양은주와 류인균의 연구(2000)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가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 12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측정도구

Solberg, Good, Nord, Holm, Hohner, Zima, Heffernan, 및 Malen(1994)의 Career Search Efficacy Scale(CESE)을 최옥현과 김봉환이 번안한 척도(2007)를 사용하여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직업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적 탐색효능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제작되었다(1=전혀 자신이 없다, 5=매우 자신이 있다). 전체 문항 전체에 응답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탐

색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동선과 정철영(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시문에 시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참가자의 분명한 응답을 유도하여 뚜렷한 요인구조를 추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최동선과 정철영(2003)의 논리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진로탐색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시문에 '앞으로의 6개월 동안'이란 시간적 조건을 제시하고, 진로탐색행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를 5점 리커트 형식(1=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5=매우 많이 할 것이다)로 측정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전체 척도에 대해 .93, 자기탐색 .85, 환경탐색 .91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진로탐색행동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 척도를 수정한 본 연구에서도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자기탐색과 환경탐색의 신뢰도 계수는 .86, .90으로 원척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 측정도구

본 연구는 Symptom Check List(SCL-90)을 김광일과 원호택(1984) 등이 우리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 한 간이정신진단검사지(Symptom Check List-90-Revision : SCL-90-R) 단축형(BSI) 척도에서 긴장, 초조, 신경과민 등 불안과 관련된 문항(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9개의 심리적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과 1개의 부가적 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원척도는 각 증상마다 참가자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형식(0=전혀없다, 4=아주 심하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 척도의 불안 문항의 내적 일치 신뢰도는 .7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을 일반 상황으로

지각한 불안과 구분하기 위해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된 지시문을 제시한 후, 앞의 지문을 읽고 떠오르는 감정과 기분을 가장 잘 측정하는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문 제시 이후 측정된 불안 문항의 총점을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전략 측정도구

개인이 선호하는 조절초점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Ouschan, Boldero, Kashima, Wakimoto 및 Kashima(2007)가 개발한 조절초점전략척도(Regulatory Focus Strategies Scale : RFS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향상초점전략(8문항)과 예방초점전략(8문항), 총 16문항으로 5점 리커트 형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의 총점은 두 조절초점에 대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다. 개인의 우세 조절초점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척도 제작자들(Ouschan, Boldero, Kashima, Wakimoto, & Kashima, 2007)이 적용한 방식을 참고하여 향상초점전략에서 예방초점전략의 점수를 뺀 값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나누어, 중앙값보다 낮으면 예방조절초점이 우세하며, 반대로 높으면 향상조절초점이 우세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원 척도의 향상초점전략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3, 예방초점전략의 신뢰도 계수는 .7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상초점전략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6, 예방초점전략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 역할 모델 지시문

Lockwood, Jordan 및 Kunda(2002)는 상황적으로 조절초점을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역할모델 지시문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들 지시문은 각각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활성화시켰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황적인 조절초점을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역할모델 지시문과 부정적인 역할모델 지시문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긍정적인 역할모델은 진로탐색의 결과로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상태를 의미하며,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부정적인

표 1.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과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
<p>나는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주요 대기업 8곳에 지원해 3곳의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던 두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에 입사를 제의받았다. 아무래도 지원할 기업의 홈페이지와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고 특징을 파악한 뒤 내 이력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성공적으로 면접에 임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나는 현재 내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매우 행복하다.</p>	<p>나는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주요 대기업 8곳에 입사원서를 제출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면접을 보지 못했다. 나와 비슷한 스펙의 선배나 친구들은 잠깐 취업하는데, 나는 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출 취업난이니 청년 백수니 일컫는 말들이 나에게 해당될지는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다. 나는 지금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이걸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다.</p>

역할모델은 불충분한 진로 상태로 인해 취업에 실패하여, 부정적인 감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목표로 작용함으로써 예방초점을 활성화시켰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역할 모델에 대한 정보가 특정한 조절초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할 모델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각되고 (Aspinwall, 1997; Blanton, 2001), 자기가 역할모델이 처해있는 상태에 동일하게 처해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한다(Lockwood & Kunda, 1999). 본 연구는 참가자 자신도 지시문에 제시된 역할모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게끔 조작하기 위해 지시문 상단에 ‘다음은 어느 연세대학교 졸업생의 수기입니다.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래 글을 읽으신 후, 계속되는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먼저 읽은 후, 기입한 후 긍정적 역할모델 또는 부정적 역할모델에 관련된 지시문을 읽게끔 하였다. 각각의 지시문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이 포함된 유형과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이 포함된 유형, 2 유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지시문이 신경증,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선호 조절 초점전략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 세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제시된 다음 제시되었다. 지시문 제시 이후, 불안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와 차례로 진로탐색행동 의도, 끝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였다. 설문 순서대로 응답하지 않고, 미리 지시문을 읽지 않도록 설문 시작 전에 순서대로 설문에 응답하여 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설문 유형은 참가자들의 성별, 학년, 전공, 설문참가 시기가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작위로 제공되었다.

자료 분석

회수된 설문지 중 218명의 자료를 분석, 처리하였다. 측정 도구들 간의 리커트 형식과 문항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변인들 간의 변산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각각의 척도를 통해 구한 변인의 총점을 각각의 문항 수로 나누어 준 평균값으로 변환하였다.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 분석을 위하여 SPSS 15.0을 사용하였고,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의 값으로 판단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이론모형이 전집자료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는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데 비해, 위의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료에 잘 부합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RMSEA의 경우 .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그리고 매개모형에서 매개효과는 측정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의 전체효과에 대한 분해과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 검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조절초점의 적합성에 따른 각 변인 간의 관계 모형 및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한 지시문제시 유형과 개인의 선호 조절초점전략 간의 일치여부로 집단을 구분한 후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각각의 모형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역할 모델 지시문의 조작 점검

연구자의 의도대로 긍정, 부정적인 역할모델에 대한 정보가 각각 향상, 예방초점을 유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와는 별도로 각 지시문 별로 심리학과 대학원생 15명씩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지시문을 읽은 직후, 향상초점(10문항)과 조절초점(8문항)을 측정하는 Lockwood, Jordan 및 Kunda(2002)의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만약 역할모델 지시문을 적용한 조작이 잘 되었다면, 향상초점 문항에서는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보다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을 읽은 참가자들이 높은 점수를, 예방초점 문항에서는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보다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을 읽은 참가자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표 2에 나타났듯이 향상초점은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을 읽은 참가자들이, 예방초점은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모델 제시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절초점이 유도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역할모델 지시문 조작점검 결과

구분	역할모델 지시문	N	M	SD	t
예방초점	1	15	3.83	.46	9.80***
	2	15	2.08	.52	
향상초점	1	15	2.77	.64	-5.32***
	2	15	3.89	.50	

1.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 제시집단 2.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 제시집단

** $p < .01$, *** $p < .001$

역할모델 제시유형과 선호 조절초점전략의 일치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개인의 선호 조절초점전략을 구분하기 위해 향상초점 전략점수($M=3.35$, $SD=.85$)에서 예방초점전략점수($M=2.92$, $SD=.68$)를 빼준 값의 중앙값(.50)을 기준으로 예방초점전략 유형과 향상초점전략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 1, 2로 더미 코딩하였다. 선호조절초점전략 유형에 따른 측정변인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예방초점전략을 선호할수록 신경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7)=1.974$, $p < .05$. 조절초점이론을 적용하면 향상초점전략을 선호할수록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참여 동기가 높을 것으로 가정되며, 반대로 예방초점전략을 선호할수록 진로탐색행동으로 인한 지각이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M_{향상}=3.42$, $SD_{향상}=.47$, $M_{예방}=3.30$, $SD_{예방}=.54$)과 진로탐색행동 참여 동기($M_{향상}=3.35$, $SD_{향상}=.67$, $M_{예방}=3.29$, $SD_{예방}=.72$)가 높았으며, 예방초점이 향상초점 집단보다 진로탐색관련으로 인한 불안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M_{예방}=2.26$, $SD_{예방}=1.02$, $M_{향상}=2.22$, $SD_{향상}=1.07$). 지시문 제시 유형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모델 제시문은 향상초점상황으로, 부정적인 역할모델 제시문은 예방초점상황으로 보고, 지시문의 제시유형과 개인의 선호조절초점전략의 일치성에 따라 향상초점 상황-향상초점전략선호 집단(42명), 향상초점 상황-예방초점전략선호 집단(55명), 예방초점 상황-향상초점전략선호 집단(67명)으로 구분하고, 각각 1, 2, 3, 4로 더미 코딩하였다.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지시문 제시 유형과 선호조절초점전략의 일치여부 집단에 따라 진로탐색관련 불안과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비교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와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 편차가 표 3에 제시되었다.

먼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247)=25.094$, $p < .001$.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비교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조절초점 상황에 속한 집단 1과 2, 그리고 3과 4 간의 차

표 3.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구 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진로탐색행동 관련 불안	1	42	1.65	.10	25.094***	①<③,④
	2	54	1.65	.09		②<③,④
	3	55	2.66	.15		③>①,②
	4	67	2.76	.12		④>①,②
진로탐색행동 참여 의도	1	42	3.22	.12	1.223	-
	2	54	3.23	.10		-
	3	55	3.45	.08		-
	4	67	3.34	.09		-

1. 항상초점 상황-항상초점전략선호 집단, 2. 항상초점 상황-예방초점전략선호 집단, 3. 예방초점 상황-항상초점전략선호 집단, 4. 예방초점 상황-예방초점전략선호 집단
 ** $p<.01$, *** $p<.001$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항상초점 상황에 속한 집단 1, 2보다 예방초점 상황에 속한 집단 3, 4가 통계적으로 더 큰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으로 유도된 조절초점에 따라 해당 조절초점에 상응하는 속성의 정서를 지각할 것이라는 Higgins(1998)의 주장대로라면 이상적 상태와 유사한 긍정적 역할모델보다는 당위적 상태를 달성하지 못한 부정적 역할모델에 대한 정보가 불안 정서를 더 야기할 것이며, 불안의 정서가 상황적으로 야기되면 예방초점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할모델 지시문 제시 유형에 따른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 역할모델 유형 ($M=2.72$, $SD=1.05$)이 긍정적 역할모델 유형($M=1.65$, $SD=.65$)보다 진로탐색관련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다, $t(216)=8.69$, $p<.001$.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대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 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개인의 조절초점전략과 상황이 일치할수록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른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예방조절초점전략이 우세한 집단은 항상초점상황보다는 예방초점 상황일 때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M_{\text{항상초점상황}}=1.65$, $SD_{\text{항상초점상황}}=.09$, $M_{\text{예방초점상황}}=2.76$, $SD_{\text{예방초점상황}}=.12$), 상황과 성향의 조절초점이 일치될 때, 동기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 조절초점이론의 설명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항상초점집단의 경우 반대로 일치하지 않은 조절초점이 유도된 예방조절초점 상황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M_{\text{항상초점상황}}=1.65$, $SD_{\text{항상초점상황}}=.10$, $M_{\text{예방초점상황}}=2.66$, $SD_{\text{예방초점상황}}=.15$). 그리고 선호조절초점유형과 무관하게 상황적으로 예방초점이 유도된 상황에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참여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M_{\text{항상}}=3.22$, $SD_{\text{항상}}=.76$, $M_{\text{예방}}=3.29$, $SD_{\text{예방}}=.64$).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실제 가설검증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예측변인인 신경증은 종속변인인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맺고 있지 않았지만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과 각각 부적, 정적 상관을 맺고 있었다. 차례로 이 두 변인은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표 4.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

	1	2	3	4
1. 신경증	1			
2. 진로탐색자기효능감	-.381***	1		
3. 진로탐색행동관련 불안	.249***	-.052	1	
4.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	-.085	.309***	.200***	1

** $p<.01$, *** $p<.001$

다음으로는 지시문 제시 유형과 개인의 우세조절초점전략의 일치여부 집단별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

표 5. 조절초점 전략과 상황의 일치여부 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 상관분석

예방전략-항상상황 항상전략-항상상황					예방전략-예방상황 항상전략-예방상황				
	1	2	3	4		1	2	3	4
1		-.35***	.27**	-.29**	1		-.55***	.33***	.02
2	-.30		-.31**	.34**	2	-.27**		-.07	.28***
3	.43***	-.23		-.14	3	.25	.19		.23
4	.08	.31***	.18		4	-.18	.30**	.35**	

1. 신경증, 2. 진로탐색자기효능감, 3.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 4.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
** $p < .01$, *** $p < .001$

인한 결과(표 5), 집단에 따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의 양상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가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함을 증명하기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단계가 충족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첫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실험연구방식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측정하지 않고, 두 변인 모두 단순히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하더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만 충족되면 매개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을 권장한다(Frazier, Tix, & Barron, 2004). Kenny, Ksashy 및 Bolger(1998)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충족되었음은 이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관계가 수반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매개분석이 검증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Shrout과 Bolger(2002)는 매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 여부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

부는 두 변인이 시간적으로 근접(proximal) 또는 떨어져 있는지(distal)에 따라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험연구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의 조작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가 시기적으로 근접(proximal)하였을 때는 두 변인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한 후 추가적인 매개분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두 변인의 형성 및 변화가 이론적으로 떨어져 있음과 동시에 두 변인을 단순히 측정하는 비 실험적 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직접적인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매개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시간적으로 떨어져있는 정도가 클수록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매개 변인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두 변인 간의 의미 있는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80%의 검정력(power)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표본이 요구된다(Cohen, 1988)¹⁾. Shrout과 Bolger(2002)는 또한 MacKinnon, Krull 및 Lockwood의 연구(2000)를 인용하여 매개 변인을 통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간접효과와 그렇지 않은 직접효과 크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두 효과의 크기가 서로 상충되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개분석을 실행함에 있어 반드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이 전체되지 않

1) 본 연구결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는 경로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대한 신경증의 간접효과는 대략 -.12를 바탕으로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유의도 .05수준, 80%의 검정력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42명의 표본 크기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도 될 것으로 보였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Shrout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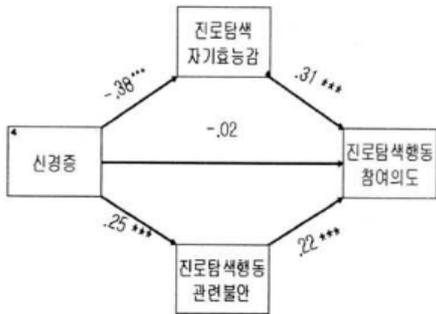


그림 1. 부분매개모형(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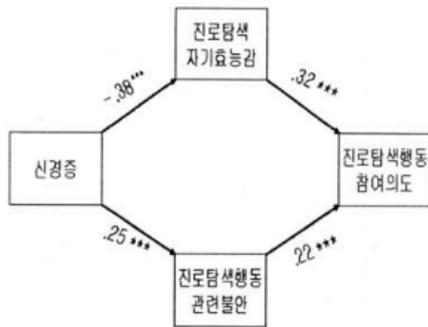


그림 2. 완전매개모형(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Bolger(2002)는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존재하며, 두 변인에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아 두 변인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직접적인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차례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매개분석을 실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매개변인이 부분 매개하는 모형과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 한 후, 연구 자료에 더 적합한 모델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였다.

본 연구는 Shrout과 Bolger(2002)의 주장에 근거하여 매개모형을 선정 및 분석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신경증과 종속변인인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간의 직접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기질적 성향인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의 형성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인간의 직접적인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신경증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 간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였으며, 차례로 두 매개변인과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매개분석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가 각각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모형(그림 1)과 완전 매개되는 모형(그림 2)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표 6에 제시된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부분매개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000(90% CI : .000-.159), TLI=1.039, CFI=1.000. 모형 내 모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였다. 완전 매개모형 또한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000(90% CI : .000-.094), TLI=1.055, CFI=1.000. 또한 모형 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두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 간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모형의 차이는 자유도 1에서 유의확률 .05 수준의 χ^2 분포 임계치 3.84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해석할 수 없었다. 이처럼 두 경쟁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높고,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신경증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beta = -.02, p > .05$), 모수의 수가 적어 더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완전매개모형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경증,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이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7). 먼저 부분매개모형의 각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면 신경증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38)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

표 6.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경쟁모형 간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500	1	.48	1.039	1.000	.000(.000-.159)
완전매개모형	.599	2	.74	1.055	1.000	.000(.000-.094)
χ^2 차이검정 모형 A : B	$\chi^2_B - \chi^2_A = .099$			$df_B - df_A = 1$		

에 미치는 직접효과(.31)가 유의하였고, 신경증이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12(= -.38 \times .31)$ 로 유의하였다. 또한 신경증에서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25)와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22)가 유의미하였으며, 신경증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의 매개효과는 $.06(= .25 \times .22)$ 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매개변인들의 직접효과가 유의할 때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대한 신경증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beta = -.02, p > .05$, 부분매개모형에서 신경증이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총효과(-.08)은 직접효과(-.02)와 간접효과(-.06)의 합이며, 이 경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총효과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직접효과는 $.25(= -.02 / -.08)$ 로 약 25%가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었고, 나머지 75%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었다. 따라서 직접효과보다는 매개 효과에 의한 설명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매개모형에서 다시 효과성을 분해하면, 신경증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38)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31)가 유의하였고, 신경증이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12(= -.38 \times .31)$ 로 유의하였다. 또한 신경증이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에,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이 차례로 진로탐색

표 7.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경로의 총효과 분해

경로	모수 추정치와 t 검증치								인과적 효과					
	부분매개				완전매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S.E	t	B	β	S.E	t	부분매개	완전매개	부분매개	완전매개	부분매개	완전매개
신경증 →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21	-.38	.03	-6.09***	-.21	-.38	.03	-6.10***	-.38	-.38	-	-	-.38	-.38
신경증 → 진로탐색행동 관련불안	.27	.25	.07	3.79***	.27	.25	.07	3.79***	.25	.25	-	-	.25	.25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 진로탐색행동 참여의도	.42	.31	.09	4.58***	.43	.32	.09	5.06***	.31	.32	-	-	.31	.32
진로탐색행동 관련불안 → 진로탐색행동 참여의도	.15	.22	.04	3.43***	.15	.22	.04	3.44***	.22	.22	-	-	.22	.22
신경증 → 진로탐색행동 참여의도	-.02	-.02	.05	-.471	-	-	-	-	-.02	-	-.06	-.07	-.08	.07

B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화계수
** $p < .01$, *** $p < .001$

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각각 .25와 .22로 유의하였으며, 신경증이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이 갖는 매개효과는 .05 (= .25×.22)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완전매개모형에서 총 효과(.07)는 매개효과의 합(=.12+.05)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의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각각의 경로들에 대한 효과성의 분해는 완전매개모형의 추정치를 통해 검토 가능하였다.

완전매개모형에서 신경증에서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에 이르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에 의한 두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절차(Bootstrapping procedures)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본래의 표본으로부터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한 후, 관심사인 통계치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통계치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한 후, 이 표본들을 가지고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 완전매개모형을 반복적으로 검증하여 이들 경로계수들의 쌍들을 가지고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때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05 유의도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모형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크기는 $\beta = -.10$,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의 매개효과의 크기는 $\beta = .06$ 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우세조절초점전략과 상황적 조절초점 유형의 일치 여부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연구 모형의 경로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집단 별로 연구 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유의미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3은 각 집단 별 경로계수를 보여준다. 먼저 각 집단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선호조절초점전략과 상황조절초점이 일치하는 ‘향상초점상황-향상초점전략번호 집단’, RMSEA=.000(90% CI : .000-.252), IFI=1.054, TLI=1.207, CFI=1.000, 과 ‘예방초점상황-예방초점전략번호 집단’, RMSEA=.067(90% CI : .000-.263), IFI=.986, TLI=.954, CFI=.985,의 모형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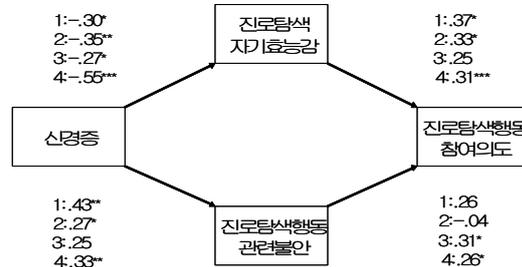


그림 3. 집단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1. 향상초점 상황-향상초점전략번호 집단, 2. 향상초점 상황-예방초점전략번호 집단, 3. 예방초점 상황-향상초점전략번호 집단, 4. 예방초점 상황-예방초점전략번호 집단

‘향상초점상황-향상초점전략번호 집단’의 경우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과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 간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경계선상에 놓여있었기 때문에($p = .05$) 연구모형이 기각되었다. ‘예방초점상황-향상초점전략번호 집단’, RMSEA=.161(90% CI : .000-.354), IFI=.866, TLI=.500, CFI=.833, 과 ‘향상초점상황-예방초점전략번호 집단’, RMSEA=.219(90% CI : .008-.320), IFI=.755, TLI=.702, CFI=.660, 과 같이 조절초점이 일치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경로계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연구모형이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경증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을 매개로 하여 진로탐색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모형은 선호조절초점전략과 상황적으로 야기된 조절초점이 일치하는 집단 중 ‘예방초점상황-예방초점전략번호 집단’에서만 적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진로탐색행동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되어 온 신경증이란 성격특성의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 모두에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가정된 진로탐색행동에서의 상태불안(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과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실제로 두 변인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절초점

이론(Higgins, 1997)의 관점을 적용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대로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은 각각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기제라는 점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은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지만,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이론의 관점에서 신경증은 예방초점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경증이 높을수록 성향적인 예방초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3, p < .05$. 성향적으로 예방초점적인 개인은 경계전략을 사용하여 목표달성에 접근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때에 불안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적 단서로 작용하지만,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경계 전략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신경증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을 더 크게 지각하고,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지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정한 경로모형을 성향적 조절초점과 상황적 조절초점의 일치여부에 따라 구분한 집단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성향과 상황적 조절초점이 일치하는 집단에서만 본 연구의 경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경증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들 변인들 간의 경로는 성향과 상황적 조절초점의 일치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절초점이론은 성향적 조절초점과 상황적 조절초점이 일치하면 행동수행에 대한 동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가정한다(Higgins, Friedman, Harlow, Idson, Ayduk, & Taylor, 2001).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이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예방초점상황-예방초점전략선호 집단의 경우, 신경증이란 자기개념에 상황적으로 유도된 불안이 선호전략(예방초점전략)을 발휘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Tamir, 2005) 진로탐색행동의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관여하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이 매개하는 방식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항상초점 상황-항상초점전략선호 집단의 경우, 신경증이 낮을수록

항상초점을 더 선호하며, 이 개인은 항상초점이 유도된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전 성공경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집단의 경우, 상태불안에서 진로탐색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경계선상에 놓였기 때문에, $p = .05$, 주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경로를 통해서만 신경증이 진로탐색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특정 자기초점유형에 따라 민감하게 지각하는 정서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며, 동시에 조절초점에 일치하는 정서차원이 지각될 경우, 관련 행동에 대한 동기 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성향적으로 항상초점적인 개인은 예방초점적인 상황에 놓였을 지라도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항상초점적인 개인이 예방초점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행동관련불안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Higgins(1997)이 주장한 바와 같이 특정 정서상태가 특정 조절초점유형에만 관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비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영심과 한덕웅(2005)도 자기지침과 조절초점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지침에 상반되는 정서상태가 더 크게 지각함을 지각하였으며, Tangney, Niedenthal, Covert, 그리고 Barlow(1998)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조절초점이라 할지라도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모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조절초점이론과 관련된 특정 정서에 대한 관련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역할모델 지시문에 따라 유도된 상황적 조절초점과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이 일치할수록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성향적 조절초점이 항상초점인 개인의 진로탐색행동참여의도의 평균치는 항상초점이 유발된 긍정적 역할모델 지시문 조건보다 부정적 역할모델 지시문 조건에서 더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Freitas, Liberman, Salovey, 및 Higgins(2002)에 따르면, 목표를 해석함에 있어 예방초점과 항상초점지향적인 개인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방초점지향적인 개인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야만 하는 최소한의 목표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빨리 목적 지향적 행동을 착수하게끔 하지만, 행동초점지향적인 개인은 목표 자체가 희망이나 포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특정 행동 실행에 대한 부담을 적게 지각한다고 한다(Ouschan et al., 2007). 목표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용하면, 이러한 경향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항상초점적인 개인에게 있어 긍정적인 역할모델에 대한 정보는 상황적으로 항상초점이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목표는 지금 당장 달성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진로탐색행동 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반대로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는 항상초점전략의 특성이 지닌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등이 결부되어 높은 진로탐색행동 의도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행동이 그 자체의 성격과 진로탐색행동을 주로 하는 집단이 처한 발달단계의 성격상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로심리학 이론들이 합리성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불안과 같은 정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을 제공하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진로탐색행동의 동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인지적 기제인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탐색과제 자체로 인해 야기된 불안이 자기효능감과는 독자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 두 변인이 기존의 진로이론에서 역기능적인 성격특성으로 간주되어 온 신경증의 성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추후 진로탐색행동 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불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변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로선택을 앞두고 진로탐색행동이 요구되는 개인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격특성이나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그 개인이 그가 처한 상황이나 진로탐색과제 자체로부터 지각하고 있는 불안을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그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는 상담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기존의 정서조절 이론이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체험이 동기수준을 낮출 것이라 가정해온데 반해 긍정, 부정의 정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주는 Higgins

(1997)의 조절초점이론을 진로연구에 적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최근 다양한 심리학분야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정서, 의사결정, 행동, 건강 등을 설명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를 비롯하여 국외에서도 진로심리학의 영역에 이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의 진로발달이 다양하고 복잡한 변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이 지닌 성향적 속성과 상황적 요인의 특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정서체험, 생각, 동기, 행동양식이 변화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조절초점이론을 적용하면, 진로이론에서 관심을 갖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충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성향과 우세조절초점전략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는데, 개별 집단에 속한 참가자의 수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의 우세조절초점전략 성향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 생각하여, 상황적 자극을 무선 할당하는 것으로 집단의 편파를 방지하고자 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파악한 후 상황적 자극에 배분하여, 각 집단의 수자를 유사하게 한 후 살펴볼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신경증이라는 성격특성과 불안이라는 정서체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인만을 측정하였지만 조절초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외향성은 항상초점, 항상초점전략, 기쁨-우울의 정서와 관련되며, 신경증은 예방초점, 예방초점전략, 불안-안도의 정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신경증과 불안, 예방초점이라는 한 축의 조절체계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신경증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가정된 외향성, 불안과 다른 차원의 정서로 이해되는 우울의 정서, 나아가 불안과 유사 차원에 속하는 긍정 정서인 안도감, 우울과 유사 차원의 정서인 기쁨의 변인들을 포함시켜 각각의 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김광일,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 한국

- 판 표준화 연구 II. 한양대 학교 논문집 제12집.
- 나영심, 한덕웅 (2005). 자기지침과 조절초점의 불일치가 자기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0(4), 431-453.
- 양은주, 류인균 (2000). 경계선 성격장애의 생물유전적 기질, 현상적 성격 및 방어기제적 특성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연구.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9(1), 3-15.
- 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지* : 22(1), 115-143.
- 최옥현, 김봉환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63-1084.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Aspinwall, L. (1997). Future-oriented aspects of social comparison : A framework for studying health-related comparison activity. In B. P. Buunk & F. X. Gibbons (Eds.), *Health, coping, and well-being :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pp. 125-165). Hillsdale, NJ : Erlbaum.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ley, D. F., & Robitschek, C. (2000). Career exploration :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63-81.
- Blanton, H. (2001). Evaluating the self in the context of another : The three-selves model of social comparison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G. B. Moskowitz (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pp. 75-87). Mahwah, NJ : Erlbaum.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11-117.
- Camacho, C. J., Higgins, E. T., & Luger, L. (2003). Moral Value Transfer From Regulatory Fit : What Feels Right Is Right and What Feels Wrong Is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98-510.
- Carver, C. S., Sutton, S. K., & Scheier, M. F. (2000). Action, Emotion, and Personality : Emerging conceptual Integ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741-751.
- Chartrand, J. M., Rose, M. L., Elliott, T. R., Marmarosh, C., & Caldwell, S. (1993). Peeling Back the Onion :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66-8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 Erlbaum.
- Connolly, J. J., & Viswesvaran, C. (2000). The role of affectivity in job satisfaction :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2), 265-281.
- Costa, P. T., & McCrae, R. R. (1985). *NEO Five-Factor Inventory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 Crossley, C. D., & Stanton, J. M. (2005). Negative affect and job search : Further examination of the reverse causation hypothe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549-560.
- Förster, J., Higgins, E. T., & Idson, L. C. (1998). Approach and avoidance strength during goal attainment : Regulatory focus and the "goal looms larger"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115-1131.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chology*, 51(1), 115-134.
- Freitas, A. L., Liberman, N., Salovey, P., & Higgins, E. T. (2002). When to begin? Regulatory focus and initiating goal pursu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21-130.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Hardin, E. E., Varghese, F. P., Tran, U. V., & Carlson, A. Z. (2006).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 Gender differences in the rule of self-constru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346-358.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ggins, E. T., Shah, J., & Friedman, R. (1997). Emotional responses to goal attainment : Strength of regulatory focus as moder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515-525.
- Higgins, E. T. (1998). Making a good decision : Value from fit. *American Psychologist*, 55, 1217-1230.
-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Idson, L. C., Ayduk, O.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3-23.
- Jordaan, J. P. (1963). Exploratory behavior :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self. In D. E. Super, R. Statishersky, N. Mattin, and J. P. Jordaan(Eds), *Career development : Self-concept theory*. New York :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pp.233-265).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ockwood, & Kunda, Z. (1998). Saliency of best selves undermines inspiration by outstanding role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14-228.
- Lockwood, P., Jordan, C. H., & Kunda, Z. (2002). Motivation by positive or negative role models : Regulatory focus determines who will best inspir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854-864.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s. *Prevention Science*, 1, 173-181.
- Ouschan, L., Boldero, J. M., Kachima, Y., Wakimoto, R., & Kashima, E. S. (2007). Regulatory focus strategies scale :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ndorsement of regulatory strateg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43-257.
- Reed, M. B., Bruch, M. A., & Haase, R. F.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223-238.
- Saks, A. M., & Ashforth, B. E. (2000). Change in job search behaviors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77-287.
- Sarason, I. G. (1973). Test anxiety and cognitive mod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58-61.
- Shah, J., Higgins, E. T., & Friedman, R. S. (1998). Performance incentives and means : How regulatory focus influences goal attai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85-29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ielberger, C. D. (1966).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 Solberg, V. S., Good, G. E., & Nord, D. (1994). Career search self-efficacy : Ripe for applications and intervention programming. *Journal of Career Devel-*

- opment, 21, 63-72.
- Solberg, V. S., Good, G. E., Nord, D., Holm, C., Hohner, R., Zima, N., Heffernan, M., & Malen, A. (1994). Assessing career search expectation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 111-123.
-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198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A test of Higgins's (1987)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56-268.
- Tamir, M. (2005). Don't worry, be Happy? Neuroticism, trait-consistent affect regul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3), 449-461.
- Wang, N., Jome, L. M., Haase, R. F., & Bruch, M. A. (2006).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312-332.

The Examination of Path Model Among Neuroticism, State Anxiety,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 Based on the Regulatory Focus Theory

Seokjoon Chun Ki-Hak Lee
Yonsei University

Based on the Regulatory Focus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that neuroticism could prompt one'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under a certain circumstance.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model fit of the path model driven by the hypothesis that perceived anxiety about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ill enhance performance by providing positive motivational cues to an individual who is high in neuroticism while self-efficacy will impede performance. 223 college students(93 men and 130 women) completed measures of neuroticism, career exploration self-efficacy, state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regulatory focus strategies. This survey was designed as having two types, one including the instruction about positive role models, the other having negative role models. Then in order to classify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contextual conditions, we randomly assigned the participants to these two types. The results revealed that career exploration anxiety posi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hile career exploration self-efficacy negatively mediated that relationship. This study also looks into whether relevant variables vary depending on different regulatory focus mechanisms, and whether accordance/discordance between dispositional regulatory focus and situational regulatory focus affects the suitability of this study's path model. When one was more prevention focused, the extension of neuroticism and perceived anxiety was higher. But when one was more focused on promotion, he had higher career exploration self-efficacy. And when the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regulatory focus were correspondent, the path model could be applied. Explanations for unexpected outcom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Regulatory focus; Neuroticism; State anxiety; Self-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7월 5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26일